

광주초록우산, 보호종료아동에 자립지원 키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 제공)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은영)가 최근 자립을 앞두고 있는 광주시 보호종료아동 100명에게 5000만원 상당의 자립키트를 전달했다. 자립키트는 이불, 전기장판, 냄비, 세제 등 각종 생활품으로 구성됐으며, 지역 내 가정위탁세대 45명을 비롯해 보육시설 거주 45명, 그룹홈 거주 10명에게 전했다. 김은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장은 "보호대상아동들에게 자립이 두려움이 아

닌 걸림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립지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며 "자립키트는 많은 후원자님들의 관심과 후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광주아동복지협회 김요셉 회장은 "작년 자립키트를 받은 아이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고 올해도 다들 기대하고 있다"며 "물건이 더 풍성해지고 제품의 질이 높아진 것 같아 더 감사하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양 왕자와공주꿈동산어린이집, 전남굿네이버스에 후원금

광양왕자와공주꿈동산어린이집(원장 홍미애)이 최근 굿네이버스 전남지부(지부장 김수경)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어린이집 행사 '왕공꿈한마당 대잔치'를 진행한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자원절약 정신을 기르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경험해 사랑을 나누는 행사로, 수익금은 국내외 위기가정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했다. 홍미애 왕자와공주꿈동산어린이집 원장은 "이번 후원금 전달식을 통해 아동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고 이웃사랑을 실현하



(굿네이버스 전남지부 제공)

는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 다양한 행사 활동 참여를 통해 원아들과 함께 나누고 배려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페퍼저축은행, 희망장학생 모집
광주, 전남·북 지역 대학생 대상

광주 여자기구단 AI페퍼스의 모기업인 페퍼저축은행(대표 장매투)이 호남 지역 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페퍼저축은행&AI 페퍼스 희망 장학금' 장학생을 모집한다. 페퍼저축은행은 올해 AI 페퍼스 배구단의 연구지인 광주시를 비롯해 전남·북 지역과 상생에 도모하기 위해 장학생 모집 지역을 호남 지역으로 설정했다. 서류 심사과 비대면 면접을 거쳐 총 10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며, 1인당 250만 원씩 총 2억 50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 전남·북 지역 소재 대학교(전문대 포함) 재학생으로, 학점 2.5 이상이면서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8분위 이하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단, 2022학년도 신입생은 신청할 수 없다. 장매투 페퍼저축은행 대표이사는 "어려운 시기임에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전남농기원, 전국최우수기관상 수상 상금 기부



(전남도농업기술원 제공)

전남농업기술원은 지난해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해 받은 시상금 5000만원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최근 기부했다.

고성신 신임 농협 광주본부장, 취임식 대신 농가 방문



(농협 광주본부 제공)

새로 취임한 농협 광주지역본부 고성신(왼쪽) 본부장은 지난 3일 북광주농협 소속 '지산딸기' 재배농가와 광주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아 현장 목소리를 들으며 취임식을 대신했다.

올림픽 3단뛰기 전설 사네예프 별세

올림픽 육상 세단뛰기에서 3회 연속 우승한 빅토르 사네예프(조지아·소련)가 눈을 감았다. 향년 77세. 세계육상연맹은 4일(한국시간) "전설적인 선수 사네예프가 호주 시드니에서 세상을 떠났다.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조지아에서 태어난 사네예프는 소비에트연방(소련) 소속으로 올림픽과 유럽선수권대회에 출전했다.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에서 17m39의 당시 세계기록으로 우승한 사네예프는 1972년 뮌헨(17m35), 1976년 몬트리올(17m29) 대회에서도 정상에 오르며 '올림픽 3연패'에 성공했다.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서는 17m24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사네예프는 유럽선수권에서도 1969년 아테네, 1974년 로마 대회에서 두 차례 우승했다. 1969년 노동적기훈장, 1972년 레닌 훈장, 1976년 인민의 친선 훈장 등을 받으며 '스포츠 영웅'으로 불리던 그는 1990년대 초반 소비에트연방이 붕괴하고, 조지아 내란이 일어나자 가족과 함께 호주로 떠났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2부	2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50 두 번째 남편(재)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국가대표 와이프(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이 맛에 산다	30 살맛나는 오늘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20 이수 픽 쌤과 함께 스페셜 50 불편해도 관철야 시즌2 55 UHD 숨터	00 학교 2021(재)	15 푸리가 식사교실(재) 45 주라기갑스3	00 애니갤러리 30 스페이스 등의보감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웃소대 뽀는 끝동(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네모세모
1	00 KBS네트워크특선 아마도 마지막 존재 50 나 의 살던 고향은(재) 55 당상을 응원합니다(재)	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열린채널			00 뉴스브리핑
3	10 어린이 동물티비 40 팔도밥상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인앤(재) 30 TV 유치원	20 뽀뽀뽀 좋아좋아 스페셜 55 기분 좋은 날(재)	
4	00 시사건건	00 슈퍼 히어로(재)	55 5 MBC 뉴스	00 최강 1교시(재)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도깨비 언덕에 왜 왔니? 15 렛츠 고릴라 30 풀짹 영화가 좋다 50 통합뉴스룸 ET	10 PD수첩(재)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집사부일체(재)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오매! 전라도	50 테마스페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이리 오나라 조선클럽	50 사랑의 파בע기	05 두 번째 남편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국가대표 와이프	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30 학교 2021	00 20주년 특별판 서프라이즈 : 비밀의 방	00 골 때리는 그녀들
10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더 라이브	40 갓피더	30 라디오스타	40 당신이 혹하는 사이 3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12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재)	00 스튜디오 K 25 스포츠 하이라이프 50 통합뉴스룸 ET(재)	10 오마이싱어	20 나이트라인 50 특집 kbc 우리동네 좋은만마케(재)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30 한국기행(재)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05:5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아가씨와 올리와 율리엄
06:10 세계테마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45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07:00 코요몽2	12:00 EBS 글로벌 뉴스	18:00 생방송 워터쇼 해결단
07:15 출돌! 슈퍼핑크	12:10 극한직업	19:00 레이디버그
07:30 뽀뽀뽀 뽀로로	13:00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19:30 한국의 돌레길
07: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4:10 EBS 다큐프라임	19:50 문해력 유치원
08:00 똥덩덩 유치원	15:0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20:40 세계테마기행
08:30 한글용사 아이야	15:25 클래스 e	<해피 뉴 이어-따뜻해서 좋아, 라오스>
08:45 꼬마버스 타요	15:45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21:30 한국기행
09:00 시몽	16:00 마사와 곰	<이 맛에, 겨울 올롱도 3부
09:15 봉구야 말해줘3	16:15 오드북, 이상한 아이들	올롱도의 참맛을 아시나요>
09:30 추피와 친구들	16:30 똥덩덩 유치원(재)	21:50 EBS 다큐프라임
09:40 우리집 유치원	16:50 내 친구 문덕이	22:4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0:10 한국의 돌레길	17:00 EBS 뉴스	23:05 바닷가 사람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5일(음 12월 3일 戊午) ☎ 010-9790-8237

36년생 문제점은 해소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 48년생 힘든 고비가 남아 있으니 각오해야 한다. 60년생 잠시 숨을 돌릴 필요가 있다. 72년생 근원적인 부분부터 깊이 헤아릴 수 있어야겠다. 84년생 혹독한 겨울 뒤에 화사한 봄날이 찾아드는 이치이다. 96년생 중차대한 일하므로 잘 새겨두어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4, 79

37년생 계속 유지 할 수는 없음을 알아야 한다. 49년생 발상은 좋으나 침묵하고 있다면 무의미하다. 61년생 속 타는 일이 생기겠지만 일시적이다. 73년생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띠게 될 것이다. 85년생 센스 있게 대처하고 재치 있게 판단해야만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이다. 97년생 그냥 지나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10, 59

38년생 힘써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다. 50년생 파악한 후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62년생 예비분의 확보가 꼭 필요한 판세에 놓여 있다. 74년생 중차대한 일이 보이나 만전을 기해야 한다. 86년생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영광스러움도 안게 되리라. 98년생 계획대로 조처한다면 성공의 길을 이끄는 열쇠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99, 51

39년생 지나치다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리라. 51년생 포용하고 나아가는 것이 무리가 없으리라. 63년생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상황이다. 75년생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희망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다. 87년생 예리한 시각으로 주도면밀한 진행을 해야 한다. 99년생 악순환의 연결고리는 과감하게 끊자. 행운의 숫자 : 16, 96

40년생 부실한 부분은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 52년생 약속되어 있는 바나 마찬가지로이다. 64년생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아예 만들지 말라. 76년생 자신이 기대했던 바보다 효과가 배가하게 될 것이다. 88년생 계획하여 왔던 바를 실행하기에 적합한 때이다. 00년생 급한 일이 생겼으니 즉시 연락해 봐야겠다. 행운의 숫자 : 14, 65

41년생 요령껏 이행해 나간다면 큰 문제는 없었다. 53년생 폭넓은 안목과 식견이 감정을 부르리라. 65년생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면서 나아가자. 77년생 가까스로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기이다. 89년생 철저히 대비해야만 이룰 수 있리라. 01년생 진행 과정이 충실했다 하더라도 마무리까지 잘 감해야 성사되리라. 행운의 숫자 : 23, 78

42년생 현안이 쉽게 처리되는 장면이다. 54년생 물꼬가 트이면서 연쇄적 작용을 일으키는 기쁨이 보인다. 66년생 원래의 구도에서 벗어나고 있으니 재충전 필요가 있다. 78년생 관계나 체면을 의식한다면 결말이 된다. 90년생 과감한 결단이 효율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 02년생 원래부터 관련이 없는 것이었느니라. 행운의 숫자 : 36, 89

43년생 장기적인 동력이 되어 줄 것이다. 55년생 상대의 논리에 빠져들지 마라. 67년생 순종의 해류에 항해하고는 있으나 해저의 암초도 잘 살펴보자. 79년생 조짐을 무시한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리라. 91년생 모두가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03년생 진실함이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9, 99

44년생 고행의 길이지만 하지만 장래를 위한 보람은 있었다. 56년생 흥분하기 쉬운 날이니 만전을 기하자. 68년생 절대로 간단하게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80년생 취약점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관심을 가져야할 때이니라. 92년생 효과가 미치지 않는 범위에 놓여 있느니라. 04년생 간단하고 명료함이 유익하다. 행운의 숫자 : 03, 52

33년생 거창한 명분에 비해서 실제의 결과는 실망스러울 수 있다. 45년생 원칙적인 적용보다 합리적인 융통성이 더 필요할 때이다. 57년생 방법의 차이가 피로감을 쌓이리라. 69년생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따라줘야만 한다. 81년생 기회가 다가오고 있으니 예의 주시하자. 93년생 어차피 어긋나게 되어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28, 57

34년생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이루어질 것이니 기대해도 좋다. 46년생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면의 부실함이 상당하다. 58년생 깊이 있는 고찰을 통해서 조심스런 행동은 해야겠다. 70년생 여건이 갖춰져 가고 있는 단계이다. 82년생 변화하는 정황까지 감응해야 한다. 94년생 준비물을 빠짐없이 챙겨야겠다. 행운의 숫자 : 20, 56

35년생 불면한다면 오래도록 집착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 47년생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니라. 59년생 서두르려만 상태로부터 의욕을 살 수 있음을 알라. 71년생 여러 가지 대처 방안이 나올 수 있지만 쓸만한 것은 딱 한 가지뿐이다. 83년생 얻는 바가 상당히 많았다. 95년생 외형보다는 실속이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18, 82